

思いやりと温かさが

財部栄子

Eiko Takarabe



profile

たからべいこ ● 出水市高尾野町在住
1973年、高尾野町生まれ。小学校より剣道を始め、鹿児島高校時代に団体全国優勝を経験。鹿屋体育大学卒業後、広島での就職を経てUターン。市の臨時職員、図書館司書などを勤める。2006年から出水市スポーツ推進委員を務める。



スポーツを通して 健康に暮らしていける サポートを続けていく

Ongoing support for healthy living through sports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포트 합니다.



出水市の主な取り組み

健康づくり対策の充実

関係機関と連携しサポートする体制整備、市民と行政の協働による全てのライフステージにおける健康づくりを推進します。「健康いずみ21」を基本とした生活習慣病の予防、健(検)診や組織体制等の整備を推進します。

Building better health policies

We are working to establish and maintain systems to offer support in conjunc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in collaboration between residents and government, in order to build healthy lifestyles at all stages of life. The "Healthy Izumi 21" document serves as a basis for preventing lifestyle-related medical problems and implementing regular health check-ups and organizational systems.

健康 만들기 대책 충실화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체제정비,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건강이즈미21」을 기본으로 한 생활습관병의 예방, 검진 및 조직체제의 정비를 추진합니다.

医療体制の充実

全ての市民が適正な医療サービスが受けられるように、地域の医療機関や近隣市町と連携し、地域完結型医療の体制づくりを図ります。

Enhancing our healthcare system

So that all residents can benefit from appropriate and effective healthcare services, we work closely with regional medical institutions and neighboring municipalities to build a complete regional healthcare system.

의료체제의 확충

모든 시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 및 근린 도시와 연계하여 지역完결형 의료체제를 만드는데 힘씁니다.

高齢者福祉・障害者福祉の充実

高齢者福祉施策等の推進、地域ケア体制の整備を図り、高齢者の自立支援や尊厳保持が図られるまちづくりをめざします。障害及び障害者に対する社会の理解や認識を深め、自立と社会参加の促進を図ります。

Enhancing welfare for the elderly and those with disabilities

Our town development aims to promote welfare for the elderly, establish a regional care system, and provide support for maintaining the self-reliance and dignity of elderly persons. We are also working seeking to deepen social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romote their further self-reliance and social participation.

노인복지·장애인복지 확충

노인복지시책 등의 추진, 지역간호체제의 정비로 고령자의 자립지원이나 존엄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듭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서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꾀합니다.

はぐくむ健康・福祉のまちづくり

Warmth and kindness through health and welfare

배려심과 온정이 가득한 건강·복지마을 만들기

私

私は平成18年から出水市のスポーツ推進委員をしています。各地区の体育大会や市民駅伝大会、出水ツルマラソン大会の競技役員など大会の準備や進行、運営などが主な活動内容です。委員は26人いて、女性は私も含めて8人います。結婚して子どももいるので朝早く集合するのが大変な時もありますが、家族や地域の人に支えられながら続けています。また、地域に貢献していると実感できるのもやりがいになっています。

私自身子どもの頃からずっと剣道を続けてきて、高校の時には団体日本一になることができました。出水に戻ってきてからも約8年間地域のスポーツ少年団を指導していました。今は残念ながらしていないのですが、たまには竹刀を握りたいなと思いますね。

現在、私たち委員が力を入れているのが「出水わくわく夢クラブ」という活動。これは小さい子どもからお年寄りまで、どの年代の方でも気軽にスポーツが楽しめる、平成19年に設立された総合型地域スポーツクラブです。バドミントンやフラダンスのほかに、スポレックという新しい種目など数多くの教室を開講しています。会員の方は現在約260名ですがもっともっと増やしていきたいです。

スポーツは体を動かすことで健康増進になることはもちろん、地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活性化することにもつながると思います。委員の活動は2年更新なのですが、できればこれからも続けていきたいですね。いつかはツルマラソンを走りたい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まだまだ先になりそうです(笑)。



I've been a member of the Izumi Sports Promotion Committee since 2006. Our activities mainly consist of preparing, running, and managing events like sports tournaments in every district, local cross-country races, and the Izumi Tsuru Marathon, for which I'm an organizing member. There are 26 committee members, 8 of whom are women, including myself. I'm married with children, so the early morning meetings can sometimes be difficult for me, but I keep going with the support of my family and the local people. It gives me a sense of contributing to the region, which is really motivating. I've been practicing kendo since I was a child, and at high school my team was top ranked in Japan. After coming back to Izumi, I was a leader of a local youth sports group for 8 years or so. Unfortunately, I'm not doing that any longer, but sometimes I really feel like grabbing the old bamboo practice sword again. At present, our committee is putting lots of effort into the Izumi Waku-Waku Dream Club, which promotes the casual enjoyment of sports for people of all ages, from very young children through to the elderly. It's a comprehensive local sports club, founded in 2007. As well as offering badminton, hula dancing, etc, it also holds a wide range of classes for new activities, such as Spolec (sponge racquetball) etc. The club has around 260 members at present, but we definitely want to keep increasing the numbers. Naturally, sport are a way to promote health through physical movement, but I think it can also help to stimulate local communication. We change our committee activities every 2 years, and I'd like to continue on doing this if possible. I'd also like to run the Tsuru marathon one day, but that's a long way off at the moment!

저는 2006년부터 이즈미시의 스포츠추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각 지구의 체육대회나 시민역전경주대회, 이즈미라크마라톤대회의 경기임원 등 대회 준비나 진행, 운영 등이 저의 주된 활동내용입니다. 위원은 총 26명이며, 여성은 저를 포함하여 8명입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있어서 아침 일찍 모이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람 또한 느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했었으며,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 단체전 1위를 수상했습니다. 이즈미로 돌아와서도 약 8년간 지역 스포츠소년단을 지도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가끔 죽도를 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이즈미 두근두근 꿈 클럽」이라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2007년에 설립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가볍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 지역 스포츠 클럽입니다. 배드민턴이나 훌라후프 외에 스포레크라는 새로운 종목 등 여러 교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현재 약 260명이지만, 계속해서 회원수를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스포츠는 몸을 움직이므로써 건강증진에는 물론, 지역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활동은 2년 갱신제이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학마라톤에도 참가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웃음).

子育て支援・児童福祉の充実

安心して子どもを産み育てる環境づくりや心身ともに健やかで人間性豊かに育つよう、多様なニーズに対応した保育サービスの充実を図るとともに、地域による子育てサポート体制整備に努めます。

Enhancing child-rearing support & child welfare

We are working to enhance child-minding services to meet diverse social needs, and to maintain a regional child-rearing support system in order to create a secure environment for raising well-balanced children healthy in mind and body.

육아지원·아동복지 충실화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만들기, 그리고 심신 건강하고 인간미 넘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에 맞춘 보육 서비스 확충을 꾀하면서, 지역 육아 서포터 체제 정비 지원에 힘씁니다.

母子(寡婦)・父子福祉の充実、地域福祉の充実

母子・父子家庭が安定した生活を営めるよう、実態に即した精神的・経済的支援対策の充実を図ります。全ての市民が健康で文化的な生活を安心と希望をもって送れるよう、生活保護等社会保障制度の周知と適正な運用を行います。

Enhancing regional welfare for single parents & widows

We work to provide mental and economic support, based on a realistic grasp of circumstances, so that single-parent households can also enjoy a stable living situation. We promote the spread of awareness, and we undertake to apply the our social security systems, (such as welfare benefits), appropriately so that all residents of Izumi can lead stable, healthy, and cultured lives filled with hope.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복지 확충, 지역복지 충실화

모자·부자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상에 적합한 정신적·경제적 지원대책의 충실화를 꾀합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희망을 가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 등 사회보장제도의 홍보와 적절한 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